



소개

101 시크릿

핑크 골드와 핑크 사파이어로 완성한 눈부신 하이 주얼리 워치 101 시크릿

주요 정보:

- **비밀스럽게 간직한 시간:** 워치메이킹의 독창성과 시간을 은밀하게 담아내는 시크릿 워치의 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 **탁월한 켄세팅 노하우:** 163 시간에 걸친 켄세팅으로 장식한 브릴리언트 컷 핑크 사파이어 124 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904 개
- **소형화 기술의 정수:** 정밀함과 전문성을 집약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기계식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101

예거 르쿨트르는 눈부신 광채의 새로운 101 시크릿을 선보이며 칼리버 101 하이 주얼리 워치 컬렉션을 확장합니다. 메종의 독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하이 주얼리의 아름다움과 파인 워치메이킹의 기술력을 결합한 타임피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선명한 시클라멘부터 은은한 블러시까지 섬세한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핑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18k 핑크 골드(750/1000)와 어우러집니다. 새로운 101 시크릿은 3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됩니다.

칼리버 101: 소형화 기술의 혁신

소형화 기술: 시계가 휴대 가능한 크기로 작아지기 시작한 16세기 초부터 워치메이킹의 역사는 정확한 시간 측정과 소형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품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내구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기술적 한계가 뒤따랐고, 워치메이커들은 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9세기 중반부터 기계적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미학적 표현과 장식을 위한 초소형 무브먼트를 개발하며



독보적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880 년 소형 에나멜 및 쟁세팅 시계에 도입한 초소형 르쿨트르 칼리버 7HP 와 1908 년 제작된 1cm² 남짓한 크기의 르쿨트르 칼리버 6EB 가 있습니다.

듀오플랜의 혁신: 1920 년대에 들어 손목시계가 포켓 위치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작은 크기의 시계와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1925 년에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듀오플랜을 선보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듀오플랜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무브먼트로, 한 층에는 이스케이프먼트를, 다른 층에는 배럴과 톱니바퀴를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칼리버에서 기어 트레인이 차지하는 공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케이스백에 세팅된 평평한 크라운을 사용하여 메인스프링을 감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독창적인 설계였습니다. 르쿨트르 매뉴팩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29 년 칼리버 101 을 선보였습니다. 듀오플랜 구조를 기반으로 한 칼리버는 정확한 시간 측정과 초소형 사이즈를 동시에 구현하며 소형화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칼리버: 길이 14mm, 폭 4.8mm, 3.4mm(부피: 0.2cm³)의 101 칼리버는 74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무게는 나비 두 마리의 정도에 해당하는 단 1g 입니다. 밸런스 휠은 시간당 21,600 회(3Hz) 진동하며, 메인스프링은 33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컴퓨터 지원 설계, 레이저 커팅, CNC 가공 등 후대에 등장한 기술의 도움 없이 이처럼 정교한 초소형 무브먼트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칼리버 101 은 탄생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기계식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라는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무브먼트 가운데 가장 오래 역사를 자랑하며, 예거 르쿨트르가 자체 제작한 주얼리 위치는 물론 여러 유서 깊은 메종의 타임피스에도 탑재됐습니다.

정확성의 유산: 지난 90 년간 소재, 기어 트레인 디자인 및 생산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칼리버의 크기와 기본 구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5 세대에 이르는 최신 칼리버 101 은 총 98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각 부품은 크기가 매우 작아 세심한 조정과 마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칼리버를 전담하는 전문 아틀리에에서는 극소수의 숙련된 워치메이커만이 초소형 무브먼트를 조립합니다.



고도의 기술과 정밀함, 오랜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으로, 98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데에만 40 시간이 소요되며, 연간 생산량은 수십 개에 불과합니다.

칼리버 101 시크릿: 하이 주얼리 위치의 유산을 잇는 새로운 작품

주얼리와 시간의 만남: 주얼리 위치의 역사는 18 세기와 19 세기 유럽 왕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휴대용 시계는 특권과 부를 상징하는 귀중한 소장품으로, 금세공, 젬스톤 세공, 에나멜 장인, 인그레이빙 장인, 젬세팅 장인들이 케이스와 다이얼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겸비한 시계와 주얼리 예술은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먼저 손목에 시계를 착용하기 시작한 이후, 20 세기 초에 이르러 손목시계는 여성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주얼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크릿 위치의 유산: 탁월한 장인 정신과 미세 기계 공학의 독창성에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디테일을 결합한 새로운 101 시크릿 위치는 20 세기 중반에 선보인 다이아몬드 풀 세팅 '시크릿' 위치 시리즈를 비롯해, 그랑 메종의 유서 깊은 주얼리 위치 유산에서 영감받아 탄생했습니다. 시크릿 위치는 당시 상류층 여성이 공개적으로 시간을 자주 확인하지 않던 사회적 관습에서 착안해, 다이얼 위에 힌지형 커버를 더해 필요할 때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힌지형 커버는 눈에 띄지 않게 설계됐을 뿐만 아니라 정교한 주얼리 예술을 펼쳐 보이는 이상적인 캔버스가 됐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사파이어: 새로운 101 시크릿 위치는 하이 주얼리의 클래식한 코드를 충실히 따릅니다. 리비에르(rivière) 스타일의 더블 브레이슬릿은 18K 핑크 골드(750/1000) 소재로 제작되며, 강렬한 시클라멘부터 은은한 블러시까지 10 가지 사이즈와 7 가지 컬러로 섬세한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핑크 사파이어 124 개(약 16.39 캐럿)가 세팅됐습니다. 대비를 이루는 그레인 세팅 화이트 다이아몬드 밴드로 나뉜 두 줄의 진귀한 젬스톤은 클로 세팅으로 고정돼 빛이 젬스톤을 통과하면서 컬러와 광채를 한층 더 선명하게 펼쳐냅니다. 케이스 측면에도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그레인 세팅돼 있으며, 다이아몬드는 브레이슬릿의 전체에 걸쳐 이어집니다. 은밀히 시간을 알려주는 눈부신 화이트 마더오브펄 다이얼은 총 904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약 13.26 캐럿)가 그레인 세팅된 직사각형



18K 핑크 골드(750/1000) 베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중심부에 위치한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완성되는 이 쥘세팅 작업은 총 163 시간이 소요됩니다.

숨겨진 마이크로공학: 마이크로공학, 첨단 기술, 전통 공예를 결합해 개발한 101 시크릿 워치는 케이스 디자인, 개폐 메커니즘, 정교한 브레이슬릿 및 쥘스톤 배치를 위해 수많은 연구 시간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시계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요소를 구현하는 작업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다이얼을 드러내는 메커니즘은 쥘스톤 사이에 완전히 감춰질 만큼 초소형으로 제작돼야 했습니다. 오직 착용자만 그 위치를 알 수 있으며, 6 시 방향에 숨겨진 버튼으로 작동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마치 책을 펼치듯 브레이슬릿의 일부가 열리면서 다이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다이얼은 핑크 사파이어 리본 아래로 다시 모습을 감춥니다.



브레이슬릿을 손목에 고정하는 클래스프에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초소형 메커니즘이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101 시크릿 워치는 미니어처 워치메이킹의 기술적 난제부터 정교한 쥘세팅 기법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하며, 칼리버 101 이 선사하는 창작의 자유를 기리는 눈부신 작품입니다. 이 하이 주얼리 워치는 단 3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됩니다.

상세 정보

칼리버 101 시크릿

케이스: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29.07 x 12.22mm x 9.88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01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33 시간

다이얼: 마더오브펄

젬스톤: 핑크 사파이어 124 개(약 16.39 캐럿)

다이아몬드 904 개(약 13.26 캐럿)

스트랩: 18K 핑크 골드(750/1000), 브릴리언트 컷 핑크 사파이어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

손목 사이즈 160mm

레퍼런스: Q2872310

3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에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